



**고창군, 식목일 맞아 청림나무심기 행사**

고창군이 제1회 식목일을 맞아 2일 오후 고창읍 내동리 일원에서 청림나무심기 행사와 산림사업 안전결의대회를 열었다. 고창군수를 비롯한 군청 공무원, 산림조합, 고창치유마을, 조경수협회, 임업후계자 등 150여명이 참여해 총 1.5ha에 편백나무 1500주를 심었다. 올해 조림사업은 총 35ha 규모로 추진되며, 편백과 상수리 나무를 식재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미래에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자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행사에는 청림나무심기와 함께 산림사업 현장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산림사업 안전결의문 낭독도 함께 진행됐다. 특히, 정읍국유림관리소에서도 유실수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에 동참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고창군과 고창군산림조합은 조립 숲가꾸기 등 각종 산림사업 시행 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산림사업장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산림사업은 산지 지형과 장비 사용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와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한 분야로, 이날 결의대회는 안전한 산림사업 환경 조성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됐다. /고창=김영식 기자

**‘K-문화의 심장’ 전북서 한국 탐방 첫발**

美 뉴욕·LA·몬타나 3개 지역 선발 청소년 24명, 열흘간 방한 일정 전북서 시작

미국 각 지역을 대표해 선발된 청소년 대사가 한국 탐방의 첫 관문으로 전북을 방문, 전통문화와 대자연이 아우르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전북의 글로벌 가치를 체험했다. 전북국제협력진흥원(원장 김기수)은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2026년 코리아 소사이어티 미국 청소년 대사 전북 탐방 프로그램’을 전주, 군산, 부안 일대에서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 대사는 미국 뉴욕, LA, 몬타나 등 3개 지역에서 각 6명씩, 총 24명이 심사를 거쳐 선발된 인재들로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진 학생들이다. 특히 이들은 10일간의 전체 방한 일정 중 포항 울산 서울 등에 앞서 전북을 가장 먼저 방문했다. 코리아 소사이어티 측은 전주를 중심으로 한 전북 지역이 K-전통문화의 정수를 가장 잘 보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로 이동하기에 최적의 지리적 요충지라는 점을 고려해 매년 탐방의 시작점으로 전북으로 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전주에서 자신의 한글 이름을 새긴 도장 만들기, 비빔밥 체험을 통해 한국의 언어와 음식문화를 경험했으며, 한옥마을과 경기전을 거닐며 역사적 깊이를 체험했다. 이어 군산 고군산도 유람선 투어와 부안 내소사 사찰 체험, 채석강 탐방 등을 통해 전북 서해안의 독특한 자연경관과 볼거리의 고유한 가치를 직접 확인했다. 올해는 변산반도생태탐방원의 협력을 통해 자연·



생태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 전통과 자연이 결합한 다각적인 체험을 제공하며 프로그램의 질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다. LA에서 온 김 크리스틴 수빈(Kim Kristin Subin)은 “한국 일정의 시작을 왜 전북에서 해야 하는지 현장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며, “전통과 자연이 어우러진 전북에서의 경험은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는 데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전북국제협력진흥원 김기수 원장은 “미국 청소년 대사가 한국을 이해하는 첫 단추를 전북에서 끼운다는 것은 우리 지역이 지닌 문화적 브랜드 파워를 증명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국제교류를 통해 전북의 미래 가치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01만호 기자



**전기안전공사, 행안부 공공데이터 평가 ‘우수’**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행정안전부 주관 공공데이터 운영실태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되며 데이터 경쟁력을 입증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는 지난 1일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5년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전기안전공사는 전년 대비 16.35점 상승한 98.8점을 기록하며, 공개성·준정기공개 부문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재난·안전 분야 인공지능(AD) 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에 선정되며 데이터의 신뢰성과 활용 가치를 인정 받았다. 또한 데이터 안심구역에 의해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 분야 4개 기관과 협업 데이터를 생산·제공하며 국민의 데이터 접근성을 높인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전통신망 안전점검 데이터를 전국 대학생 데이터 경진대회에 제공해 국토교통부 장관상 수상에 기여하는 등 데이터 활용 성과도 이어졌다. /오상근 기자



**한전 김제지사 등, 봄철 산불예방 합동캠페인**

한전 김제전력지사와 국립공원공단이 봄철 건조기를 맞아 산불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내렸다. 한전 김제전력지사(지사장 김영근)는 최근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와 함께 부안 능가산 내소사 일대에서 산불예방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근 지사장을 비롯한 한전 김제전력지사 직원과 국립공원공단 관계자 등 총 20명이 참여해 협력의 의미를 더했다. 참가자들은 내소사를 찾은 등산객과 주변 상인들을 대상으로 산불로 인한 송전선로 고장 사례를 공유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신고 요령이 담긴 홍보물을 배부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봄철 건조한 날씨로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맞아 산불 예방의 중요성과 함께 전력시설 보호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알렸다. /오상근 기자

**만화로 보는 ‘틱 장애 이해하기’ | 전북대병원 박태원 교수 펴냄**

전북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박태원 교수가 틱장애를 겪는 어린이와 가족들을 위한 의학 만화책을 펴냈다. 전북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박태원 교수가 틱(Tic) 장애 환아와 보호자를 위한 의학 만화책 ‘틱 장애 이해하기’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도서는 동진재단이 기획한 희귀질환 어린이를 위한 의학만화 시리즈의 하나로 제작됐으며, 틱장애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책은 전문적인 의학 정보를 만화 형식으로 풀어나 질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치료와 관리 과정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박 교수는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분야의 전문의로서 다년간 축적한 임상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쉽고 친근한 설명을 담았다. 특히 틱장애의 주요 증상과 진단 과정, 치료 방법, 일상생활 속 관리 요령 등을 어린이와 보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해 질환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책에는 △틱 증상의 원인과 신경생물학적 이해 △진단 기준 및 최신 치료법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 △학교생활 가이드 등 실질적인 정보가 담겼다. 또한 틱장애가 단순한 습관이 아닌 전문적인 치료와 상담이 필요한 질환이라는 점을 알리고, 환아들이 자존감을 잃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조언도 수록됐다. 박태원 교수는 “현장에서 많은 부모가 아이의 틱 증상을 보고 스스로를 탓하거나 잘못된 정보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웠다”며 “이 만화책이 틱장애에 대한 편견을 낮추고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의 눈높이에 맞춘 쉽고 친근한 설명을 담았다. 특히 틱장애의 주요 증상과 진단 과정, 치료 방법, 일상생활 속 관리 요령 등을 어린이와 보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해 질환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책에는 △틱 증상의 원인과 신경생물학적 이해 △진단 기준 및 최신 치료법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 △학교생활 가이드 등 실질적인 정보가 담겼다. 또한 틱장애가 단순한 습관이 아닌 전문적인 치료와 상담이 필요한 질환이라는 점을 알리고, 환아들이 자존감을 잃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조언도 수록됐다. 박태원 교수는 “현장에서 많은 부모가 아이의 틱 증상을 보고 스스로를 탓하거나 잘못된 정보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웠다”며 “이 만화책이 틱장애에 대한 편견을 낮추고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농가 경제적 부담 덜다’... 정읍시,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

정읍시가 친환경 농산물 재배 활성화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관내 친환경 농산물 생산·가공·취급 농가를 대상으로 매년 발생하는 인증 비용을 지원한다. 친환경 농가는 매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정한 기관의 인증 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때 신청료와 관리비 등 비용이 발생한다. 이에 시는 유기농·무농약 등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관내 124개 농가에 건당 최대 35만원(진류 농약 검사 포함 시 최대 44만원)의 인증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친환경 농산물을 활용한 유기·무농약 가공식품 생산자와 취급자에 대한 인증 비용도 함께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실

제 소요 비용의 85% 수준이며, 가공식품 인증비는 건당 최대 100만원, 취급자 인증비는 건당 최대 55만원까지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 및 사업자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 가공식품 인증서, 취급자 인증서 등 관련 증명 자료 사본과 신청서를 오는 11월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연중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친환경 농가들이 매년 겪는 인증 비용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내 훌륭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더욱 확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 샘골농협, 제1회 조합원 한마음대회 개최**

샘골농협(조합장 허수준)은 최근, 정읍국민체육센터에서 ‘제1회 조합원 한마음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며, 지난 20년의 발전을 돌아보고 향후 100년을 향한 새로운 도약의 의지를 다졌다. ‘함께한 20년의 같이, 함께할 100년의 가리’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이날 행사는 조합원과 지역민 그리고 각계 내빈 등 약 2,000여 명이 참석해 화합과 소통의 장으로 펼쳐졌다. 이날 행사에서 가장 주목받은 순간 중 하나는 샘골농협의 비전 선포식이었다. 샘골농협은 경제사업 2,000억원, 상호금융 3,000억원, 자산 4,000억원 달성을 목표로 하는 중장기 발전 계획을 발표하며, 지역 대표 농협으로서의 성장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다. 한편 샘골농협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조합원 중심의 참여형 행사와 지역사회 연계 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선운산농협, 2025 농기계은행사업 연도대상 수상**

선운산농협(조합장 김기욱)은 지난 1일 농협중앙회 본점에서 열린 2025년 농기계은행사업 연도대상 시상식에서 드문모심기 및 ‘신규농기계 계통 공급’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해당 사업은 농업인이 고가의 농기계를 직접 구입하지 않고도 저렴한 가격에 임대 및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업 생산비 절감과 영농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농협에서 시행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장애인복지관-전북과학대 ‘맞손’**

정읍시에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 지난달 27일 전북과학대학교 혁신지원사업단(단장 최미혜)과 함께 장애인인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와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현재 지역 내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은 단순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학습의 지속성과 단계적 역량 축적에 한계가 있었다. 이로 인해 기초 능력 형성의 어려움, 지속적인 학습 기회 부족, 성인기 지원 준비 미흡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정읍성장캠퍼스’는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총 15회기에 걸쳐 전북과학대학교에서 진행된다. 기초 문해·학력 보완 교육 등 이론 중심 학습을 비롯해 체험·실습형 참여 프로그램, 역량 강화 중심 교육 과정을 통합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성인대학 형태의 교육 모델을 적용해 학습자 중심의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교육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의 권리 인식 제고와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시민권리 옹호단 양성사업’도 추진된다. 이를 통해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을 다질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죽향동 지사합, 2026 제1차 정기회의**

남원시 죽향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3월 31일 죽향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6년도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소외계층 없는 따뜻한 지역사회의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날 회의는 협의체 위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 위원 위촉식과 함께 2026년도 주요 복지사업을 위한 연합모금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사업 추진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남원=김기두 기자

**도통동, 찾아가는 반찬 지원 협약사업 추진**

남원시 도통동 행정복지센터는 한국도로공사 남원지사(지사장 이병진, 이하 공사)와 관내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26년 3월부터 12월까지 ‘찾아가는 반찬 지원 협약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도통동과 공사의 협약 사업으로, 공사에서는 ‘찾아가는 반찬 지원 사업’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도통동은 1일 1가구 방문에서 발굴된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반찬을 지원하며, 안부를 확인하고 생활 실태를 살펴보는 등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남원시장은 “앞으로도 도통동행정복지센터와 협력해 따뜻한 지역공동체 조성에 힘쓰겠다”고 전했으며, 이재철 동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식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과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알림**

▲순종장일 흥무왕 춘향대제= 일시: 10일(금) 오전 10시, 장소: 원산사(완산구 봉곡리 1길 5-2), 주최: 가락 전북특별자치도 춘천회, 문의: 063-284-2040



**남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장학생 선발**

남원시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정일선)는 2일 전북도 평생교육진흥원과 KSD나눔재단이 추진하는 장학사업을 통해 소속 학교 밖 이지역 청소년이 장학생으로 선발됐다고 밝혔다. 이지역 청소년은 평생교육진흥원이 추진하는 2026년 꿈키움 장학금 장학생으로, 신수원 청소년은 KSD나눔재단이 추진하는 2026년 KSD 꿈드림 장학사업 장학생이다. /남원=김기두 기자